

---

# 2021년 제38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1. 9. 17. ~ 9. 23.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9. 17.	시청률	0.028

## 【총 평】

상생이라는 주제로 강화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프로젝트 '강화 유니버스'와 충남 공주시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야간에 탐방하는 여행코스' 그리고 수원시의 추석맞이 '사회적 기업들의 상생 장터' 등을 방송했다. 또 올바른 분리배출에 참여하면 지역 화폐를 받을 수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재활용 분리배출은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10월 2일 '노인의 날' 관련 '고령화 사회의 그늘, 노인학대의 증가'와 보람찬 노후 보내는 '인생 2막' 열정 가득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을 방송했다. 이 밖에 가을을 맞아 다양한 여가활동으로 '한, 중, 일 e 스포츠 대회'을 전했고, 가을철 산행을 앞두고 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독버섯을 소개하며 식용버섯과의 차이점과 위험성 등을 알려주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생각하게 했고, 다가오는 '노인의 날'과 고령화 사회의 고민해야 할 지점을 보여주었다.

## 【구성 및 내용】

- 상생의 여행 함께해요...강화 유니버스  
인천시 강화군, 강화도 입구에 있는 강화유니버스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행과 체험 사업을 소개했다. '강화유니버스'는 타지의 청년 여행객들이 강화도의 청년들이 운영하는 가게와 유적지 탐방 등의 소통의 프로그램이다.
- 올바른 분리 배출하면 '지역 화폐' 지급 호응  
고양시 일산 서구의 주택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원순환가게'를 소개했다. 깨끗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되돌려준다.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자부심도 갖게 한다.
- 고령화 사회의 그늘 '노인 학대' 늘어난다.  
노령화 사회가 빠르게 되어가면서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노인이 노인 반려자를 학대하는 노노(老老)학대 사례도 많아졌다.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의 효과는 미미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 스스로가 인권을 지키고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고 충고한다.
- 보람찬 노후 보내는 '인생 2막' 열정 가득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울산의 음식점을 소개했다. 자연 재료로 토속적인 맛을 내고, 시니어클럽 보조금 지원으로 음식값도 저렴해서 경쟁력이 높다. 식당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은 일정 수당도 받는다.
- 가을 산행 '독버섯' 주의, 함부로 먹으면 큰일  
가을에 산행을 갔다가 야생버섯을 딸 수 있는데 종류에 따라 맹독성을 갖고 있기도 하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야생버섯은 손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수목원에서는 독버섯과 식용버섯 구분법과 버섯상식을 알리기 위해 전시회를 열었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9. 17.	시청률	0.000

### 【총 평】

‘치매국가책임제 4년, 성과와 향후 과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 4년을 돌아보고 그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해본 기획이 시의적절하고 정책 알림이 측면에서 뛰어났다. 고령화 추세로 치매환자가 급증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치매 질환은 간병으로 인한 가계와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게 나타난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가족의 고통도 심화된다는 점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국가가 이런 점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한지 4년이 지났다. 지난 4년간의 성과로 인프라 확충, 의료비용 대폭 완화를 들고 대국민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제시한 점이 설득력을 높였다. ‘알뜰신잡’은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소개했으며, 특히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불가능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상세히 그래픽으로 소개해준 점이 돋보였다.

### 【구성 및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가 4년째를 맞이했다. 치매환자들을 가정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발견, 관리, 치료, 사회적응, 가족들의 안전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2017년 6월 일자리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치매관련 인력들의 예산을 배정하고 2017년 9월 관련법을 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 중 특히 치매의료비용 완화를 강조했다. 직접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돌봄 부담 경감도 도모했다.

‘치매국가책임제 4년, 성과와 향후 과제’편은 정책의 도입 배경, 정책의 성과, 수용자 만족도, 향후 과제 등의 구성이 정책이해도와 설득력을 높였고, 왜 치매 국가책임제가 필요했는지 도입 배경과 목표를 도입부에서 다루어 정책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치매 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는데, 치매 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 관리,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요양비와 의료비지 부담 대폭 완화, 치매 예방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인생 전 주기 치매 R&D 시행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국가치매 관리 인프라 개선 성과를 살펴보면 각 지역사회에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를 개설했고, 공립치매 전담형 노인요양기관 115개소, 의료기관에 치매 전문병동 50개소, 치매 안심병원 5개소를 설치했다. 특히, 치매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전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일조했다. 모든 국민이 치매의 관련자라는 관점에서 전국토의 치매안심지역화가 추진되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이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3.3%로 나타났다.

향후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과제와 정책 방향으로서는 치료제 예방제 개발, 치매안심병원 확충, 치매 극복 연구 등이었다. 이 밖에 ‘치매’가 일본식 표현이고 위화감을 주고 있다며, ‘치매’ 질환을 친근한 용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감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산이 좋아 물이 좋아		
방송일자	2021. 9. 17.	시청률	0.024

### 【총 평】

‘가을의 길목에서 양떼와 춤을 - 경북 칠곡’편은 200마리의 양이 뛰노는 넓은 초원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주인공을 소개했는데, 목가적 풍경과 양을 대하는 진심이 느껴졌다. 소 사육으로 시작된 그의 귀촌 생활은 2010년 구제역 파동을 겪으며 위기를 맞았지만 이내 칠곡만이 갖고 있는 자연적 특징을 이용해 양떼 목장을 시작했고, 편식을 하는 양떼들을 먹이고 키우기 위해서, 매일 아침 5시에 하루를 시작할 만큼 부지런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인공이 일인다역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치러야 하는 그의 삶을 보면서, 평화로운 그림같은 풍경의 목장은 정작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만들어 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자신의 삶에 충분히 만족한다는 주인공의 일상이 삶에 지친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다시 힘내서 잘살아보자며 응원을 건네는 것 같았다.

### 【구성 및 내용】

경상북도 칠곡 남계리 벽화 마을, 이곳에는 영화 ‘칠곡 가시내들’의 주인공이기도 한 할머니들의 시가 벽면에 예쁘게 새겨져 있다. ‘칠곡’이란 이름은 일곱 개의 봉우리에 일곱 개의 골짜기를 이루었다는 뜻이다. 벽화 마을에서 출발해 인생을 시처럼 즐기고 있는 칠곡 양떼 목장의 주인공을 만났다. 그림처럼 예쁜 초원이 펼쳐진 목장에서 200여 마리의 양들을 키우고 있는 그가 양들을 키우며 깨달은 인생철학을 들었다.

주인공은 2013년부터 칠곡에서 생활해 야산을 정리하고 가꾸어서 지금의 목장으로 꾸몄다. 목장의 위치가 산지여서 소를 방목하는 것보다 양을 키우는 것에 적합하기 때문에 양떼 목장으로 전환했다. 이제는 입소문을 타고 방문객도 늘어나 한해 평균 약 5만명에 이르고 있다. 양들의 먹이도 신경 써서 양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톨페스큐’풀을 키우기 위해 추파도 하며 내년 봄을 준비한다. 전직 의사 출신이라 아픈 양이 있으면 즉각 치료와 처치를 할 수 있어 폐사율을 낮출 수 있다. 새끼 양들에게 젖병으로 수유도 하는데 하루에 무려 다섯 번을 먹여야 한다.

“(양들은)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안전한 휴식처, 배부르고 맛있는 밥, 그 다음에 뛰어놀 수 있는 초지. 그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더 요구를 안 하거든요. 사람은 자꾸 요구가 많고 또 권력이나 이익에 마음을 쉽게 돌리죠. 그래서 시골에 오면 마음을 비우진 못하지만 욕심을 덜 부릴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 아름다운 칠곡의 푸르른 초원과 그곳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떼 목장, 보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한 장면처럼 평화롭기 그지없지만 그 곳을 가꾸는 주인공에게는 24시간이 부족한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그의 하루는 몇 개의 알람을 맞춰두어야 일과를 빠뜨리지 않고 해낼 수 있으려나 싶을 정도로 바쁘게 흘러간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9. 18.	시청률	0.003

### 【총 평】

‘30년 만의 귀향, 이장은 내 운명’편은 고향을 떠난 지 30년 만에 요양을 위해 돌아온 60대 주인공이 마을 이장을 10년째 맡으면서 빈집이 늘어나던 농촌 마을을 귀농인이 찾아오는 행복한 마을로 바꾼 헌신과 집념의 성공 스토리가 프로그램의 진가를 발휘했다. 농촌 빈집을 귀농인의 집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하고 문화적 요소를 가미해 2018년 농촌 빈집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을 수상하고, 소시지 만들기 체험장 운영, 요들송 가수 출신 귀촌인의 요들송 교육 등 주민 호응을 유인하는 등 마을 발전의 성공적 요인이 돋보였다. 특히 고령화와 이농화로 농촌 마을 인구가 줄어들어 마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충북 증평군 죽리마을은 귀촌 인구 증가로 가구 수와 주민 수가 늘고 더욱이 어린이가 늘어난다는 사실이 희망을 갖게 했다. 지금까지의 소재가 농촌을 찾아 자연과 함께 유유자적하는 이야기였으나 이번 소재는 이장이 신념을 갖고 마을을 이끌면 희망의 마을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력을 높인 점이 탁월했다.

### 【구성 및 내용】

세 가지 보물을 품고 있다는 전설의 삼보산과 650년 된 느티나무가 반겨주는 충북 증평군 죽리마을에는 도시로 떠난 24살 청년이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죽리 마을의 이장이 되어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다. 거제 조선소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주인공이 요양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의 폐가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주인공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방치된 폐가를 복원하는 것으로 2018년 농촌 빈집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죽리마을이 전국 대상을 수상했다. 주인공은 외지인이 마을에 쉽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마을에는 모두 6채의 귀농인의 집이 있는데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집이다. 이 밖에 소시지 체험 마을 사업을 시작해 다른 농촌 체험장과 차별화를 두었다. 이장의 사명감과 농촌 발전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재미있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었다는 구성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 ‘사람이 찾아오는 농촌, 다양한 이웃이 어울려 사는 모두의 고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충청북도 증평군 죽리마을에는 귀농체험으로 농촌살아보기 사업이 있다. 귀농에 관심이 있지만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사업이다. 농촌의 가장 근본적이 고민은 인구 소멸이지만 죽리마을은 해마다 인구가 늘고 있다. 새롭게 귀농하고자 하는 이들의 정착을 도와주면서 2012년 55가구에 125명의 인구가 현재는 70가구에 145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죽리마을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귀농인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재능기부를 하고 있어 문화생활에 목마른 시골생활의 삶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야 농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이 죽리마을의 발전을 불러 왔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9. 19.	시청률	0.000

### 【총 평】

‘친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남북미 관계를 분석하고 전망한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동선 및 발사 상황에 우리군의 추적 및 포착이 가능하며, 우리나라는 사드 및 SLBM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되짚으면서 국민의 안전에 안도감을 주었다. 또, ‘알아두면 언젠가 쓸 데 있을 것 같은 신박한 미사일 상식’에서는 미사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남북한이 긴장상황이지만 서로의 진위 파악을 위한 소통으로 전쟁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것,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마무리 메시지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슈 텔링’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에 북한에 거주했던 청년을 통해 당시 최대한의 예우를 보여줬던 북한의 모습과 북한 주민의 환영 행사에 얹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 【구성 및 내용】

‘친특’은 지난 9월 1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그 의도를 점검하고, 미국과 남북관계 구도를 진단했다. 또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대책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춘 우리나라의 국방 대응 실태를 알 수 있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다섯 번째로, 이를 전인 9월 13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후 연이어 이어진 도발로 국내외 많은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심각한 문제이며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있어서 한미군사동맹과 우산 정책 등을 기반으로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우리 군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통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완벽하게 방어할 능력이 있음을 소개해 시청자들을 안심하게 만들었다. 이어 우리나라가 9월 15일 세계 7번째로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국방력에서 북한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 우리 ‘SLBM’이 아주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자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은 비난담화를 발표했다. 북남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로 끝을 맺었고, 우리정부는 기본적 예우를 갖추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슈 텔링’은 북한 출신 청년과 함께 시간을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다. 북한 주민에게는 남한의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흥분되는 사건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던 만큼 북한 정부가 남한의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극존칭을 쓰고, 북한 주민들 앞에서 최초로 연설을 하는 것 등 모든 것에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통일과 비슷한 평화의 무드가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흥분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1. 9. 19.	시청률	0.006

### 【총 평】

‘딸 같은 며느리?!’와 ‘효도는 셀프?!’를 통해 고부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보았다. 특히 고부 갈등이 유발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댁과 처가에서 머무는 시간, 명절휴가 여행 등 시의성 있는 소재가 방송되어 주목도를 높였다. 딸 같은 며느리에서는 시집살이, 며느리와 시누이의 관계, 명절의 고충 등에 대해 다루었고, 효도는 셀프에서는 시아버지 스트레스와 셀프효도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았다. 시집살이와 며느리 살이의 실상을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결혼했으면 다 가족이라는 끈대할매의 조언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청년층에게 민감한 이슈를 트렌드에 맞게 설정하는 구성이 타깃 오디언스인 청년층을 끌어들이며 MZ세대로의 수용자 확장 효과가 기대된다.

### 【구성 및 내용】

유명 개그맨의 아내를 초대하여 ‘딸 같은 며느리’ 및 ‘효도는 셀프’라는 내용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불합리한 관계 등에 대해 짚어보았다. 끈대할매가 명절 준비로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하며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가 시집살이를 했으니 너도 해라.”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와 “내가 시집살이를 어렵게 했으니 내 며느리는 안 시켜야지”하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시어머니의 3대 거짓말이라고 답했다. 끈대할매는 어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지금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 이해가 간다고 말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시누이가 명절에 14박 15일로 영국으로 여행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 시어머니에게 얘기하자 명절에 어디 여행을 가느냐고 화를 내며, 시누이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갈 수 밖에 없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댄다고 말했다. 또 출연진이 아이 모유수유에 간섭하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딸같이 생각하는 시어머니는 없다고 주장하자 끈대할매는 간혹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명절때 시가와 친정에 있는 시간을 물어보자 시댁에는 이틀, 친정에는 당일 바로 갔다 오는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못마땅해 갖은 핑계를 대며 친정에 못 가게 한다며 시어머니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모님은 사위와 딸과 꼭 함께 하려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또 결혼한 후에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게 각자 효도하는 셀프효도가 트렌드라고 말하며 물, 단무지 그리고 효도는 3대 셀프라고 설명했다. 끈대할매가 그럴 거면 왜 결혼했냐고 묻자 출연진은 요즘 젊은 부모는 노후를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자의 입장에서 시집살이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며 결론을 내기보다는 대화를 주고받으며 가볍게 풀어 나가려는 구성이 몰입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9. 19.	시청률	0.003

### 【총 평】

‘변하는 교실, 미래 교육을 말하다’편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과 문제점, 보완과제 등을 다각도로 심층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바꾼 교육환경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교육방식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를 짚었다. 또 최근 교육환경 변화로 인한 비대면 교육 격차, 인성교육 보강 문제 등 보완해야 할 점을 점검하였다. 메타버스의 미래 교육 활용,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입시환경 변화 등 교육현안과 과제를 살펴본 구성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발했다.

### 【구성 및 내용】

‘변하는 교실, 미래 교육을 말하다’는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교육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교육 방식의 변화, 코로나19가 바꾼 온라인 교육환경과 장단점,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와 생활지도의 어려움, 입시환경의 변화, 진로 설정 교육 등에 대해 다루었다. 기존의 교육과정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국민 개인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여 지식을 배우고 창의성 개발을 위주로 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또 사회 변화 흐름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많은 원격수업이 이뤄졌으며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활용한 교수법의 변화와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에 대한 보완점이 제시됐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 격차, 인성교육 보강 문제 등을 점검하였다. 코로나19 초기에는 EBS의 온라인 콘텐츠에 의존했으나 작년 2학기부터는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수업으로 변화하였고 이를 통해 카메라, 마이크,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변화로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필요한데 학생들은 여전히 입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인성교육 등 생활지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울리면서 생활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딜러를 찾아서’에서는 동서울대학교 창의메이커스페이스를 찾아 가상현실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수와 학생들을 소개했다. 가상현실 수업인 ‘XR class’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통해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벗어난 수업의 장점을 소개하고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교육이 병행되고 있는 현재 교육환경을 소개하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이 곧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입시환경 변화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교육 이외에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된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으며, 사교육도 교육 동반자로 인식되는 시대가 오는 만큼 사회 전체가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로그램	KTV 특집 'UN 가입 30주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방송일자	2021. 9. 19.	시청률	0.000

### 【총 평】

KTV 특집 'UN 가입 30주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는 유엔 가입 30년을 맞아 1991년 남북 공동 유엔 가입국이 되기까지 우리 정부의 노력과 복잡했던 과정 등을 반추해 들여다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사례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하고 자긍심을 주었다. 또 그 과정에서 IMF를 겪어내는 과정들을 잘 보여주었다. 특히 경제적, 문화적 성장으로 선진국 국민이 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무엇이며, 선진국 국격을 갖춘 나라와 국민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포괄적으로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며 그 역사를 기억해보고, 그동안 우리 국민이 가꾸어 성장시켜온 우리나라의 위상을 현재 시점에서 짚어보았다. 특히 우리 대통령이 미국 뉴욕의 유엔에서 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21세기 우리의 보물인 BTS도 동행하여 대통령 특별사절로 함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모멘트 개최 세션에 참석해 연설과 영상 퍼포먼스를 보이기로 예정되어 있어 감회가 깊은 30주년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유엔가입을 시도한 것은 1949년으로 한국전쟁 발발 이전이다. 그동안 가입 반대를 해오던 북한이 남북한 동시가입으로 가닥을 잡게 되고 1991년 9월 17일 제 46회 UN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입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된다. 무려 42년 8개월만에 유엔 가입국이 된 것이다.

통일부 대학생 기자의 생생한 UN방문기를 시작으로 유엔 전현직 대사의 인터뷰, 남북한 유엔 가입과 아프리카 외교를 다룬 영화 '모가디슈'등을 통해 남북 공동 유엔 가입국이 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의 과정이 잘 구성되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롤모델 삼아 자국에 적용하는 여러 사례들을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학생과 이민자의 생활,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보여주었다. 또 영국인 이민자를 통해 한국생활의 장점과 단점을 들여다보며 한국인으로 더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요소들을 되짚어보게 했다.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고 해도 높은 빈부의 격차, 양극화된 사회가 보여주는 단면인 주거 문제,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문제, 치명적인 자살률 등 우리사회의 그늘에 놓여있는 문제에 사회적 관심과 고찰이 필요함을 과제로 남겨준 마무리와 여운이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을 살렸다.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K-브랜드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 '무엇을 해도 역시 한국이니까', '한국이 한국을 하니까'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다. 노력해서 이룬 것이니만큼 부족한 것은 채워가면서 잘 가꾸어서 자부심을 겸손함으로 가려도 넘쳐날 수 있도록 잘 지켜서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프로그램	빅포레스트		
방송일자	2021. 9. 20.	시청률	0.004

### 【총 평】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정부가 내놓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환경프로그램 '빅포레스트'를 기획해 방송한 점이 돋보였다. 특히 환경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운동을 소개해 정부의 정책알림과 친환경 캠페인 효과가 기대되었다. 수소차 친환경 차량 보급, 탄소중립 실천으로 숲 가꾸기, 무동력 레포츠, 1회용품 사용 및 분리수거, 친환경 실천운동을 소재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탄소중립의 필요성 등을 알리려는 기획의도를 충분히 살렸다.

### 【구성 및 내용】

지구친화적인 저탄소 착한여행으로 전라북도 완주군을 방문했다. 완주는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과 함께 로컬푸드가 우수한 곳으로 수소경제 중심도시이자 자연친화적 도시다. 빅톤의 멤버들은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전라북도 완주로 친환경 여행을 떠났다. 지구의 온도는 지난 100년동안 1도씨의 상승이 있었지만, 기후 변화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2050년까지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수소차 충전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며 빅톤의 착한 여행이 시작된다. 대야 수목원에 도착한 빅톤 멤버들은 숲의 요정으로 부터 숲과 기후와의 관계 및 산림정책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대야수목원 레이스 승자가 되기 위해 펼쳐는 멤버들의 냉정한 승부의 세계와 해프닝 등이 펼쳐져 흥미를 더했다. 레이스 내용도 탄소흡수율이 높은 수종인 백합나무, 금낭화, 대왕참나무를 찾는 미션이어서 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숲을 가꾸고 숲에는 탄소흡수율이 높은 나무를 가꿔야한다는 점을 일깨운 기획이 돋보였다. 레이스 결과에 따라 순두부 정식, 두부탕수육 등 완주 별미를 맛보는 부분은 완주의 특산품과 맛집 알리기 홍보효과도 나타났다. 또 완주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서는 추억의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하는 모습이 그려져 몰입감을 높였는데, 무동력 레포츠도 결국 탄소중립 사회를 홍보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다. 이 밖에 안덕 건강힐링 체험마을을 방문해 분리수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저녁식사를 위한 장보기를 진행했다. 인스턴트 푸드, 일회용 용기 등을 지양하고 로컬푸드를 구입했다.

또 완주 소양면에 위치한 카페를 방문하여 일일 아르바이트 체험을 진행했다. 해당 카페는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는 친환경 카페다. 숲 가꾸기의 일환으로 무궁화 묘목을 식재하며 친환경 여행으로서의 의의를 더했다.

젊은 예능인 출연, 밥상 레이스 미션 수행, 이벤트와 해프닝 등 구성이 종전 '1박2일' 포맷과 유사해 친근감을 느끼게 했고, 아이돌 그룹 빅톤 멤버의 게임형식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정책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메시지를 전달하는 포맷이 주효했다.